

Ted Hildebrandt 박사, 책 II 의 찬양, 세션 3

애도-찬양

© 2024 테드 힐데브란트

시편 제2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는 테드 힐데브란트 박사(Dr. Ted Hildebrandt)입니다. 찬양의 기초가 되는 탄식과 저주에 관한 세 번째 세션입니다.

시편 제2권의 세 번째 하나님 찬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칭찬과 관련하여 2권에서 나오는 세 가지 주요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편이 등장한 제의적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의식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2권의 찬양에 관한 의례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매우 어려운 주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애도입니다. 나는 애도를 찬양의 근거로 삼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둘째, 칭찬의 기초로서 저주에 대해 연구하겠습니다.

그곳이 고무가 도로와 만나는 곳입니다. 그것은 만들기 어려운 연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본적으로 2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비탄의 배경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빈도를 계속해서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프레젠테이션에서 다루게 될 세 가지 사항입니다. 우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는 시편의 세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있었고, 시편 기자가 있었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알아차린 것은 적들이 해를

끼치고 잡아먹고 올무를 만들고 구덩이를 파고 그들의 입으로 사자와 뱀과 들짐승과 들개를 삼키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탄원하는 자나 시편 기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왕에게 간청하고 왕은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왕은 탄원하고 탄원하며 희생을 드리며, 기본적으로 왕은 시편 기자에게 구원과 구원과 구출과 보호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요새, 바위, 보안과 같은 비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것들. 그러면 결국 왕은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이제 왕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할 내용입니다. 왕은 또한 시편 기자를 구원하고 구출하는 동시에 적과 싸우고, 패배시키고, 처벌하고, 정의를 실현합니다. 거기에서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칭찬의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 인물이 오늘 우리의 토론에 적합합니다.

이제 나는 이러한 찬양의 의식적 맥락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시편은 구약 학자들이 제의적 배경이라고 부르는 것, 즉 기본적으로 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전은 시편 표현의 초점이자 장소이다.

잠언과 같은 구절이 있는 곳에서는 왕이 현자들과 함께 궁궐에 있는 것이 중심입니다. 역사서들이 있는데 왕들의 연대기와 모세의 배경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성전이 실제로 그러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의식의 초점이자 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제2권을 살펴보고 의식이 시편 제2권의 본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42장과 43장 42절, 3절, 4절의 첫 구절은 “사람들이 종일 나에 대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동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양식이 되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조롱을 당하고 있으며 원수가 그를 조롱하는 방식은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시편 2권 전체에 퍼져 있는 조롱입니다.

내가 심령을 쏟아 부으며 군중과 함께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행렬이 보이나요? 그는 자신을 위로합니다. 원수가 묻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그리고 그는 내가 무리와 함께 행렬을 이루어 하나님의 전으로 갔던 때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은 축제하는 무리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를 외치며 성전입니다.

그런 다음 43장 3절과 4절의 몇 절을 보면 42장과 43장이 시편 1편과 2편, 9편과 10편, 42편과 43편과 비슷한 한 쌍의 시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4. 당신의 빛과 진실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안내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나를 당신의 거룩한 산, 거룩한 산, 성전이 있는 시온산, 당신이 계시는 곳으로 데려가게 하소서.

그러면 나는 당신의 제단, 곧 하느님의 제단으로 두루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제단 주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것은 성전 앞에 제단이 있는 성전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기쁨이요 기쁨이신 하나님께 제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는 당신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래서 2권이 열리면서 42장과 43장부터 성전, 하나님의 산, 제단이라는 맥락에서 수금으로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다음 부분은 성소로 가는 이 행렬에 관해 2권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아마도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올라가는 시편이라고 부르는 다른 시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68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 바룩 엘로힘, 하나님을 찬미받으소서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 48편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행렬이 시작되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그의 행렬이 보이셨나이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왕의 연결을 주목하십시오. 이들은 시편의 주요 인물이자 시편의 주요 은유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분께서 성소로 행진하시나이다. 앞에는 가수가 있고 그 뒤에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이 행렬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는 가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탬버린을 연주하는 처녀들이 있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행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수들, 음악가들, 탬버린을 연주하는 어린 소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회중 가운데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들을 이끄는 작은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족들을 거치며 어떻게 부족들이 가수, 음악가, 탬버린 연주자들을 따라가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베냐민 부족이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68:35, 오 하나님이여, 이 일이 일어난 곳, 주의 성소에서 주는 엄위로우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나 바룩 엘로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행렬이며, 노래하는 자들과 음악하는 자들, 그리고 부족들의 행렬이 어떻게 성소로 올라가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51장과 51장은 아마도 2권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일 것입니다.

51편은 밋세바와 죄를 지은 후에 다윗이 회개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주님,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 하나님,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소서. 그런데 5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희생의 맥락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찬양의 노래입니다. 시편 51편 15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당신은 희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단, 성전, 회중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당신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의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의식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가져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회하는 시편 51편이 노래되는 제단이 문맥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으로 시온을 번영하게 하소서. 여기서도 예루살렘 모티브가 매우 크게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라. 이제 이것은 다윗의 회개의 시편인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46-48편이 실제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산,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51장에서 예루살렘의 성향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라. 그러면 의로운 희생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제사는 의로운 제사, 즉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제단에 황소들이 바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과 50편 사이에는 매우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나는 너희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필요 없어요. 내가 당신의 희생을 먹을 것 같나요? 나한테 네 음식이 필요했니? 그는 나에게 당신의 음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는 천 개의 언덕에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기억할 수 있을까? 나는 수천 개의 언덕에 소를 소유하고 있고, 곤충까지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흥미 롭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야, 너희 제물로 나를 먹여준다고 해서 나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라. 나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 참회 시편으로 계속해서 의로운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제사는 무엇입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네가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이제 의식적 맥락이나 제의적 맥락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6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성전과 희생, 기도의 맥락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은 66, 13에서 20까지의 바룩 엘로힘과 같은 주석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가서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여러분은 서약이 서원을 하는 일종의 제의적 의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여러분에게 한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성전으로 옵니다.

내 입술이 맹세하였고 내 입이 환난 중에 말하였느니라.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찬양의 서약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곤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는 당신이 나를 구해 주시면 당신을 칭찬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찬양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내 입술이 맹세하였고 내 입이 환난 중에 말하였느니라. 내가 당신께 살진 짐승과 숫양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나는 황소와 염소를 바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희생적인 언어를 볼 수 있습니다. (셀라) 명상을 잠시 멈추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제 그는 자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서원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제 그는 그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으로 그에게 소리쳤다. 그의 찬양이 내 입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마음에 죄를 품었다면 주님은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데에는 특성이나 선행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기도의 음성을 들으셨고 들으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 바룩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의식적인 맥락에서, 그분이 자신의 서약을 이행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나실인 서원을 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나실인은 머리를 밀고 제단에서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민수기 5장과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과 함께 서원이 완료되었음을 주의하십시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전환 중이며 이것은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칭찬의 근거가 되는 애도.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주요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칭찬의 근거로 애도하고, 칭찬의 근거로 저주를 할 것입니다.

이제 우선 헤르만 궁켈(Herman Gunkel)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시편을 훌륭하고 자세하게 나누어 소위 다양한 장르로 분류했습니다. 장르 중 하나는 애도의 시편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도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청원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종의 용어적 논의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애도시가 있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의 첫 부분은 개인의 애도였습니다.

시편 51편, 54편부터 57편, 59편, 61편, 64편, 69편부터 71편. 그래서 제2권에는 개별 애가의 시편인 꽤 많은 시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애도는 나, 나, 나의 종류의 개인, 단수인 개인에서 전환될 때입니다.

커뮤니티는 우리, 우리, 우리 같은 것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시편 44편과 60편에는 일반적으로 복수형인 we, us, our 등 의 대명사로 식별되는 공동체 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송가를 듣게 됩니다.

47장에 찬송이 있고 특히 65~68장은 시편 제2권의 위대한 찬송입니다. 찬송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2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정상적으로 공부한다면 곧바로 65~66, 67, 68편까지 가서 찬양의 시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2권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나는 찬송가에 많은 찬양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애가의 시편에는 엄청난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가의 시편들 사이의 연관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전 애가의 시편입니다.

나는 그것이 시편의 1권, 1권, 2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장부터 41장이 1권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책에는 많은 애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2권에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애도의 시편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1권과 2권 애가에서 옮겨가다가 시편 마지막 부분에 있는 5권에 이르면 거기에 찬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2권에서도 애도로 시작해서 2권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찬양하는 애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도, 초기 시편과 결말 65~68편, 찬양의 찬송.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냥 고전을 읽는 거예요. 이것은 짧고 고전적인 애도의 시편이며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애도 시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제가 말하려는 가장 큰 요점입니다.

시편에 갑자기 갑자기 나타나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분명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한다. 칭찬하는 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의 시편 중 많은 것에는 애도에서 찬양으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시편 13편은 고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웨스 로버츠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시편 13편을 훌륭하게 시각화했습니다. YouTube에 올라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웨스 로버츠의 시편 13편을 들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고전적인 애도.

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 있고 교회의 장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시편을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당신의 교회에 장로로 서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편은 결국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그리고 교회 전체에 조용히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도를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애도를 깨기 위해 뛰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내 생각과 씨름하며 날마다 마음에 슬픔을 품고 있어야 합니까? 내 원수가 언제까지 나를 이기리이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시 원수에게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이길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애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 오 나의 하나님, 내 눈을 밝히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 잠들 것입니다. 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고 말할 것이며 내가 넘어질 때에 내 원수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붐, 교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음으로다 그리하여 시편은 끝납니다.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는 한탄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저를 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가 느끼는 방식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시편 13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찬양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이 많은 애가의 특징입니다. 이제 나는 모든 애도가 그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행복한 칭찬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편 중 일부는, 그래서 제가 시편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 사람이 애도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는 시편을 끝맺습니다. 그는 방송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은 이에 대한 고전입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애가의 시편은 언제나 찬양으로 끝난다고 다들 말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종종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찬양할 차례가 있을 수도 있고 찬양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무너지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들은 삶을 있는 그대로 묘사합니다.

시편 88편은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시편 88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며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가리시나이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받아 죽음에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눈물을 겪었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당신의 분노가 나를 휩쓸었습니다. 당신의 공포가 나를 파괴했습니다. 온종일 그들이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당신은 내 동료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에게서 빼앗아갔습니다. 어둠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기간. 토론을 종료합니다. 어둠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잠깐만요. 칭찬을 받으려면 올라와야 합니다. 아니, 어둠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기간.

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관주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시편 88편을 시편 89편과 연결시키려고 함으로써 이러한 비관주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시편 88편의 완전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88편과 89편은 짝이 아닙니다. 시편 쌍이 있는데, 1장과 2장의 명확한 쌍은 명확한 쌍입니다. 42장과 43장은 반복되는 후렴구로 보여주었듯이 명확한 쌍입니다.

시편 9편과 10편은 쌍성체가 있는 명확한 쌍이며 이 쌍성체는 9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며 두 부분을 서로 연결합니다. 시편 89편과 88편은 그런 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여기에 있는 내용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인 마가복음 16장 8절 끝 부분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끝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로 끝납니다. 여자들이 와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니라.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수도승들이 복음의 결말은 정말 나쁜 결말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당신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끝나야 합니다.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가복음의 긴 결말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마가복음의 짧은 결말은 NIV와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두려워하고 떨다가 평 소리를 내며 복음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신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물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삶과 사물, 그리고 이 여성들이 어떻게 겹을 먹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마가복음을 통해 두려움과 떨림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고 거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들을 보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애도이고 우리는 애도에 관해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이 노래를 듣는 사람 모두가 알게 될 큰 애도가 시편 22편이라는 것을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아, 이것은 다윗의 시편이다. 이제 내가 말하면 여러분은 데이비드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빗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당신은 내 신음 소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시편 22편을 계속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글쎄요, 그게 누구 입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다윗이 예수님보다 천년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시편을 입에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애도의 중요성은 단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위급한 시기에 애도를 선택하시고 그 애도를 통해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애도와 찬양을 연결해 봅시다.

나는 이제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기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드리자면, 교회에서는 애도가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올바른 삶을 산다면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교회 환경에 있습니다.

애도의 시편인 십자가 위의 예수님은 그것이 항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번영복음은 죽음이다. 내 생각에 우리 문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매우 가혹한 말씀보다는 번영의 개념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추종자가 되고 싶다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탄식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행복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문화에서 과소평가됩니다.

그것은 잠언이나 다른 문화, 심지어 성경과도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재산이 많으면 친구가 천 명이지만, 가난하고 슬프면 우는 사람은 혼자 운다.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백 명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생각엔 우리가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이 바울이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좋아, 여기 복음으로 넘어가자.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의 맨 아래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칭찬의 기초로서 애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애도가 왕의 구원을 구하는 부르짖음에서 나오는 찬양의 풍성한 빛깔을 연주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도 어두운 배경이 있을 때 화면 때문에 고생했던 것처럼 흰색이 더 눈에 띕니다. 여기에 황갈색 배경이 있으면 글자가 튀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애도는 우리에게 찬양이 돋보일 어두운 배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도의 풍부한 색채가 시편의 배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연결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요점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칭찬은 기본적으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행한 일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삶의 기복이고 그것이 단지 모든 것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애도는 찬양의 기초이다. 다섯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다섯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다섯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2장과 43장에서 제가 계속 이 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온종일 나에게 이르기를 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는 동안 내 눈물이 밤낮 내 양식이 되었나이다.” 42장 10절, 내 원수들이 나에게 종일토록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함으로 가르쳐서 내 뼈가 심히 고통을 받나이다. 같은 질문, 같은 질문이 시편 쌍에서 두 번 반복되었습니다.

이어서 시편의 후렴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가? 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희는 왜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 하는가? 그리고 그는 휴식을 취합니다. 변화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나는 여전히 그를 찬양할 것이다. 그는 어떻게 이 낙담한 영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는 생각하기를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경우입니다. 여러분의 신은 어디에 계시나요?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은 낙담하고 불을 일으키고 그는 그것에서 깨어납니다. 57장에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것을 잠시 보기 위해 여기로 돌아올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편 57편입니다. 우리가 이 애도를 표명하고 여기에서 이러한 변화를 보게 될 또 다른 시편입니다. 이제 시편 57편을 읽어 보겠습니다.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향하여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분께서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심히 쫓는 자들을 꾸짖으시어 나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당신은 이 뜨거운 추격을 봅니다. 적들이 그를 쫓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내십니다. 나는 사자 한가운데에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제 사자가 어떻게 적에 대해 사용된 은유 중 하나였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사나운 짐승들 사이에 누웠으니 그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 혀는 칼 같이 날카로운 사람들이로다. 그래서 파괴와 해를 끼치는 도구입니다. 그들이 내 발 앞에 그물을 쳤습니다.

나는 고난 중에 몸을 굽혔습니다. 그들이 내 앞길에 구덩이를 팠으나 그들 자신이 그 구덩이에 빠졌도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울무로 삼아 구덩이를 파고 자기 자신에게 빠지게 됩니다.

이제 9절 아래로 내려가면 이런 종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이 굽주린 짐승들이 나를 뒤쫓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혀와 말은 칼처럼 날카로워서 정말로 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9절, 57장 9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만민 중에서 당신을 노래하리니 당신의 사랑이 커서 하늘에 닿았음이니이다.

주의 신실하심이 하늘에 닿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아지소서. 당신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시편 57편 9절부터 11절의 이러한 측면은 Matt Houghland라는 사람의 시편에 등장했습니다. YouTube에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방금 검색해 봤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불립니다. 검색하고 싶다면 Matt Houghland의 Great is Your Love를 읽어보세요. YouTube에 있습니다.

Matt는 나의 이전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위스콘신의 Camp Forest Springs에서 일합니다. 그는 훌륭한 음악가이자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는 이 구절을 바탕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며 주는 하늘 위에 높아지소서. 당신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아지게 하소서.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것은 시편 기사를 삼킬 준비가 되어 있는 이 굶주린 짐승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가 돌아서면 칭찬을 향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이 큰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맥락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예루살렘 46장부터 48장, 51장까지를 읽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나라로 퍼져나가는 것을 갑자기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편 57편입니다. 이 탄식에서 다시 한 번 찬양으로 아름답게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시편을 위해 시편 59편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9편은 탄식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보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 주님, 나의 허물이나 죄로 인해 사나운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음모를 꾸몄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나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려면 일어나세요. 내 곤경을보세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나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저녁이면 으르렁거리며 개처럼 으르렁거리며 돌아와 성읍을 두루 돌아다닌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게걸스러운 동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개들이 그들을 쫓아다니며 이세벨의 피를 핥고 그 여자를 삼키는 것 같은 나쁜 일, 정말 나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입에서 무엇을 토해내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입술에서 칼을 내뿜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입술과 칼이 연결되어 있어 말을 통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가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나요? 그들은 개처럼 으르렁거리며 성 안을 배회하듯 저녁이 되면 돌아옵니다. 14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도 으르렁거리는 개들이 공격해 그를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9절이나 16절, 59절, 16절에서 평,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침에 당신의 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들이 밤에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아침에 그가 주의 힘을 노래하리로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요새이시며 환난 때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왕의 비유는 바위의 비유, 요새의 비유, 성채의 탑 같은 강한 탑의 비유로 나누어집니다. 오, 나의 힘이시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애도와 찬양으로의 전환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3위였습니다. 네 번째는 시편 69편입니다.

69편은 긴 시편, 애도의 시편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같은 애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69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목까지 차왔나이다

예레미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레미야는 며칠 동안 정화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내 목까지 차오르는 물에서 이렇게 부르짖으니 나는 발 디딜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나를 삼키나이다 나는 지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목이 말랐어요. 내 눈이 나의 하나님을 찾지 못하느니라.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나이다.

까닭 없이 나의 원수들이 많도다. 그들은 나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나는 흠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와서 이르시되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이들이 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조롱을 참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설명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멸시를 견디고 수치심이 내 얼굴을 뒤덮습니다. 또 부끄러움과 명예문화에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큰 일이다. 그는 자신에게 닥칠 수치심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에게는 낯선 사람입니다.

수치심이 너무 깊어서 가족관계마저 무너져 버립니다. 당신 집의 열심이 나를 삼켰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숙한 것 같나요? 주의 집의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게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데이비드. 예. 예수께서 나중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 주의 집의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리고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의 모욕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내가 울며 금식할 때에도 조롱을 참아야 합니다. 내가 굶은 베옷이나 삼베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장로들이 모이는 존귀한 자리인 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비웃느니라. 나는 술취한 자들의 노래이다. 19절 그러면 내가 얼마나 멸시를 받고 불명예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였는지를 너희가 아느니라.

나의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경멸은 내 마음을 상하게 했고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동정심을 찾았지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위안자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 좀 봐. 좋아요.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아릅답습니다. 나는 동정심을 찾았지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위안을 주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 음식에 쓸개를 넣었고 목마를 때 식초를 주었습니다. 익숙한 것 같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들은 나에게 쓸개를 주었다. 그들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식초를 주었습니다. 위로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이제 데이비드입니다. 그들은 이 시편과 이 시편과 이 애가를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탄식을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는 애도를 구체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 우리의 번영을 차지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라. 이것은 설명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 올려 퍼집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추종자라면 그것은 우리 삶에도 올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69편, 거기에 물건을 놔두는 곳인가요? 아니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그것이 발생합니다.

시편 69편 29절과 30절, 내가 괴로움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구원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성공합니다. 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름다운. 결국 그는 실제로 창조를 의인화합니다.

하늘과 땅이 그를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찬양하지 않으면 바위들이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중의 모든 동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온과 함께 갑니다. 지금 시온으로 돌아오고 있는 시편 69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재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입니다.

아름다운. 여러분은 예수님과 십자가와 사물에 대한 메시아적 함축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은 실제로 시편 66편에서 두어 편의 시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편 66편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고른 이유는 이런 애가를 찬양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출애굽의 모티프와 출애굽과 찬양을 위한 운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찬양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좋은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 모티브라고 불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봄에는 시편의 출애굽 모티브를 훌륭하게 활용한

David Emanuel, Nyack College의 David Emanuel 박사를 녹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시편의 출애굽 모티브 개념에 관해 이스라엘에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이자 새로운 출애굽의 인물로 묘사된 마태복음을 읽어 본 적이 있다면요. 그래서 이 출애굽 모티브는 성경 전체에 걸쳐 반복됩니다.

출애굽은 구약의 위대한 구속 행위였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구속행위이셨던 것처럼,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이 구약의 위대한 구속행위입니다. 시편 66편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인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그분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출애굽이 홍해나 갈대해를 건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물을 통과합니다.

와서 그를 기뻐하자.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직후 미리암이 불렀던 바다의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큰 구원을 받은 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노래가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거기에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물을 건너갑니다. 오라, 그 안에서 기뻐하자. 그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눈은 나라들을 지켜보십니다. 반역자들이 그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 백성들아,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라.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셨고,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지켜 주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발을 실족지 않게 보호하시고 애굽에서 건지셨느니라 그런 일을 행하셨느니라 이제 전환하여 개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시편 66편은 애굽의 구원에서부터 개인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그가 이르되, 와서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가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제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국가적 구원이나 위대한 구속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일 뿐입니다. 나는 입으로 그에게 소리쳤다.

그의 찬양이 내 입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마음에 죄를 품었다면 주님은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기도의 음성을 들으셨고 들으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나에게서 그분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아름답고, 다시, 변화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는 정말 곤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그 연결점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현실적인 이 애가를 시편 전체에 걸쳐 담고 있습니다.

칭찬은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삶의 상처와 고통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들을 품고 품고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큰 이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탄식은 찬양의 기초입니다. 이제 그것은 한 수준입니다. 이 애도는 찬양과 연결되어 있으며 많은 시편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나는 지금 훨씬 더 어렵고 의심할 여지 없이 더 어려운 문제, 즉 비난에 맞서고 싶습니다. 비난이란 무엇입니까? 저주란 시편 기자가 사람을 저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제로 시편 기자가 사람을 저주하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나는 당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깐만요, 잠깐만요”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비난으로 인해 큰 윤리적 문제를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비난의 윤리적 의미를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은, 전체 논문이 있고 실제로 온라인에 논문이 올라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주하는 시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편 모음입니다.

다음은 저주하는 시편의 목록입니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려진 시편입니다. 당신의 아기를 바위에 던져버리게 하시고, 당신의 턱을 박살내게 하시고, 물 없는 바위 위의 민달팽이처럼 사라져 버리게 하소서. 그래서 시편 5, 10, 17, 35, 59, 58편입니다.

그런데 58편이 우리 본문에 있는데, 시편의 두 번째 책인 59편입니다. 따라서 58편과 59편은 저주의 시편입니다. 우리는 59, 69, 70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2권에 나오는 네 개의 저주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79편, 83편은 그 유명한 저주의 시편인 시편 109편입니다. 모두가 시편 129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137편도 포로 이후의 일종인데, 당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이제 당신도 그렇게 멸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37편 중 두 편을 꼽으라면 아마 그 두 편이 가장 유명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에게서 시편 58, 59, 69, 70편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유명하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것은 적의 파괴를 요구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나는 단지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주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58, 59, 69, 70이 제가 다루어야 할 네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시편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편을 통해 발견한 것은 시편 전체에 수많은 저주의 진술이 있지만 그들은 이것을 저주의 시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을 비난하고 심판을 촉구하는 짧은 진술이지만 기밀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저주하는 시편에는 나오지 않는 많은 저주적인 진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르 분석의 일부에서 문제를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 애도 시편, 찬송가, 개인 및 공동체 애가 시편, 기타 교훈적인 지혜 시편을 아는 장르 측면에서 군켈과 다른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매우 편리하고 유용한 분류입니다. 그러나 장르 분류로 인해 여기 저주받은 시편 58, 59, 69, 70편이 있다고 말하는데 눈이 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네 편의 시편보다 설명해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이 네 편의 시편을 단지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다루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축소하고 건너뛰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악마적이라고 부르기 위해 모든 종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적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은 원수를 대적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저주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저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무시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을 무시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해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골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행복한 부분을 좋아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려운 부분 중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든 일의

강인함을 꺾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몇 가지 리소스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리소스와 리소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의하세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일종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는 이해를 위한 모델을 생각해 냈고, 기본적으로 George Elton Ladd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신약성경을 위해 개발한,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던 모델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미 적용하고 싶지만 아직 함축 문제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미 과거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저주요, 이미 일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심판하셨다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시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미래가 있거나 아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현재가 있습니다. 즉, 신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쳐부수기를, 그런 말을 하길 바랍니다. 그가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을 올리고 싶고 더 큰 맥락에서 그 비난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왕으로서 심판을 받으십니다.

솔로몬이여, 열왕기상 3장에서 공의롭게 재판하라는 언급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자신에게 너무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는 재판관이고 그의 직업은 하나님이고 왕은 시편 기자를 구원하고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를 구출하는 것 중 일부는 그를 구출하고 원수인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임무는 구원하고 구출하는 것뿐 아니라 악인과 대적을 멸망시키고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악인들을 멸하셨는가? 애굽에 내린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일과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모리 족속을 멸한 일이니라. 개인의 구원은 시편 기자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원수를 멸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변화를 찬양하기 위해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구원하신 일도 일어납니다. 이제 그것은 이미입니다. 아직은 어떻습니까? 시편에서는 미래를 묘사합니다.

그것은 인용문, 주의 날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요엘서나 그와 비슷한 책을 말해보세요. 그러나 주님의 날과 같은 일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수를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의인의 구원이 언제까지리요?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얻었는지 기억합니다. 오 주님, 언제까지 저를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선언이 얼마나 오랫동안 다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때와 지금, 그리고 미래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하겠다는 서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장래의 찬양, 장래의 찬양,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앞으로도 찬양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암시하는 바는 '그가 되기를 바랍니다'이며 이것이 시편 기자의 희망입니다.

그런 다음 시편 기자는 자신이 구원을 받고 원수가 멸망되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의미를 제시합니다. Lex talionis,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것처럼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멸하려고 그를 따라온 것처럼 당신도 그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멸망될 것입니다. 이집트의 장자들과 함께 바로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아들도 이
사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오는 변호, 하나님의 영광, 찬양에 대한 약속.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함축은 칭찬 약속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칭찬과
연결됩니다.

그러니 복수나 그런 종류의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저는 이것을 약간의
맥락에 두고 여기 있는 시편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씨름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당신을 악의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적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일어났느니라.
그들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당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만날 때 조심하십시오.
원수와 이런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적들에게 매우 가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조심해.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5장 44절의 그 구절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구절을 취하여 성경 전체에 그렇게 매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더 넓은 맥락에서
사물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난의 맥락을 칭찬의 맥락에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했듯이 모든 저주가 악마적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원수를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데이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지적한 다섯째 인의 심판, 하늘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곳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는 영혼들과 순교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편 기자가 영망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훌륭하지만 그 사람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모든 문제와 비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러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니, 아니, 이 사람들은 천국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은, 아, 요한계시록인데,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아니,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늘이 열렸으니 다섯째 봉인이니라 요한계시록의 인과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기억하라. 그래서 다음 봉인인 두루마리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릴 때, 두루마리가 열리면서 각 봉인, 닫혔던 봉인이 깨어집니다. 이것은 두루마리 5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적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적들은 실제로 이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2018년이고 나는 이슬람 국가라는 남자에 의해 지중해를 따라 줄지어 있는 기독교 형제들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감히 그 이름을 말해볼까?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 21명의 피가 지중해로 흘러가는 동안 그들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우리는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얼마나 자주 지켜보아야 했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 2분 동안 텔레비전에 나오다가 우리 옆으로 지나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모술로 가세요. 이라크의 모술은 고대 니네베가 티그리스 강 상류에 있었던 곳입니다. 나는 모술을 떠나는 마지막 여성 중 한 명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생각에 그곳에는 십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불구가 되어 모술을 떠났습니다. 십만 명의 기독교인이 모술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시리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기독교인 대량 학살에 대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아, 안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 때문에 그것을 간과합니다.

무엇이든 공포증으로 간주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로 떠나서 미안해요.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어느 세대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죽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그것의 일부일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존재인가요?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 중 일부, 예,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이 큰 소리로 외쳤음이 분명하도다. 얼마나 오랫동안 친숙한가?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기까지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매우 강력한 진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건너뛰니다. 우리는 그것을 건너뛰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와 우리의 사랑스런 일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죄가 있습니까? 미안해요, 그들은 천국에 있어요. 당신은 죄보다 당신 자신의 죄를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저는 상황의 복잡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언급하는 것뿐입니다. 간단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 이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이것은 여기서 복잡한 문제이고 우리는 복잡한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말하는지 알 잤아? 인생은 단 하나뿐인 것이 아니며 우리는 항상 상황에 대해 한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을 여기에 올려 보겠습니다.

John Day는 이에 대해 많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Crying for Justice*라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논문도 이러한 비난의 개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2002년 159년 달라스 신학교의 *Bibliotheca Sacra*에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논문과 그의 논문은 제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며 출판된 책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Chelmer Martin은 *Princeton Theological Review*의 시편에 *Imprecation*을 썼습니다.

그것은 또한 내 웹사이트인 *Gordon College*에 있는 웹사이트에서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90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여기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고전인 시편의 저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책은 무료가 아니며 책을 구입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Eric Zenger의 작품이고 *A God of Vengeance, Understanding the Psalms of Divine Wrath*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책이 아마도 최고의 책이고, 그에 관한 최고의 책일 것이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최근의 일입니다. 나는 이 책이 그것에 관한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리소스 중 두 개는 온라인에서 확보됩니다. 이제 모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모델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이미 애굽에 심판을 행하셨고 이미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아직은 아닌 미래, 그가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저주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편 44편 2절과 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과거에 이미 적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이미 적을 파괴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은 시편 44편 2절과 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신 손으로 나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심으시고 민족들을 멸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칼로 땅을 얻은 것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당신의 오른손이요, 당신의 팔이요, 당신의 얼굴의 빛이요,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복수였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정복을 언급한 것입니다.

시편 53편은 과거 심판의 교육적 기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과거판결의 교육적 기능.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나는 이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일하실 때 악인과 함께 일하실 때 그에게 목적이 많겠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많은 목적을 갖고 있었나요? 당신의 삶의 여러 순간에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당신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는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까?
아니요, 부모는 로봇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우리에게는 똑똑한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쁜 예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로봇이 아닙니다. 부모는 매번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 동생과 나는 방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3층 창문을 쳐서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웃집에 돌을 던졌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겁이 나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셨어요. 나의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규율을 지닌 분이셨다.

그리고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하기보다는 온화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언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시며, 적들에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십니다. 여기 시편 53편 2권 4절과 5절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겠느냐? 사람이 빵을 먹음 같이 내 백성을 삼키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이니라.

그곳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공격한 자들의 뼈를 흘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공격한 자들의 뼈를 흘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멸시하시나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원수들, 하나님은 그들의 뼈를 흩어버리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뼈를 흡수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그런 것들을 경멸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순수한 복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악인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단지 복수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 뒤에는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더 많이 밝혀져야 할 것 같아요. 여기 57장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3, 57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lex talionis 성격입니다.

Lex talionis는 보복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눈에는 눈, 둘에는 둘. 이제 우리는 눈에는 눈, 둘에는 둘이라고 하면 끔찍한 심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범죄는 형벌에 합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그들 사이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과민반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과소반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lex talionis, 당신이 한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편 57편 6절, 그들이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나는 몸을 굽히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는 길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빠지게 하려고 구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속에 빠졌도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려고 했던 일이 이제 그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렉스 탈리오니스(lex talionis)입니다. 여기에 정의 동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한 것처럼 정의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그가 이미 이 일을 했다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미래의 적의 멸망, 아직은 없는 일. 시편 50편 4절은 거의 주님의 날과 같은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땅을 부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늘과 땅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저주의 심판, 즉 자신의 백성에게 내려지는 저주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제기하고 싶은 다음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저주를 내리시며 미리 경고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함께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 이 사람은 시편 기자이고 시편 기자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복수심에 불타는 사악한 사람이라고 그냥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시편 50장 22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 자신이 위태로운 미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고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당신을 구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조각조각 찢을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한 진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당신을 찢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주받은 사람을 그냥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뇨, 아뇨, 그렇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52장 5절, 다윗을 위로하고 골리앗의 칼과 음식을 준 놈의 제사장들을 죽인 에돔 사람 도엑에 대한 시입니다. 시편 52편, 하나님께서 도엑이나 악인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악인을 대신하여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잡아 네 천막에서 떼어 놓을 것이다. 그분께서 너를 산 자의 땅에서 뽑아내실 것이다. 꽤 강력한 진술.

하나님은 당신을 붙잡아 내리실 것입니다. 그 나쁜. 그럼, 미래를 위한 또 다른 하나.

시편 53편 23절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며, 주는 악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 중 하나는 악인을 부패의 구렁이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피에 굶주린 자들과 사기꾼들은 그들의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악인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시편 55편 23절의 아름다운 진술입니다.

이제 그것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미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경고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설정했으며 사악하고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저주가 내려질 것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

자, 시편 기자가 참여하는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제 5월로 넘어가네요 그, 이것이 바로 비난이다. 나는 여기서 칭찬의 근거로서 저주 사이의 연관성을 그려볼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과거에 악한 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미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 자신과 우리는 이것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고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2편은 5절과 6절, 시편 53편은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여, 당신은 반드시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잡아 네 천막에서 떼어 놓을 것이다. 그분께서 너를 산 자의 땅에서 뽑아내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를 산 자의 땅에서 뽑아내실 것이다.

이봐, 당신은 죽었어. (셀라) 명상을 잠시 멈추세요. 그가 너를 잡아 네 천막에서 떼어 놓을 것이다.

그분께서 너를 산 자의 땅에서 뽑아내실 것이다. 셀라, 좀 자제하는 편이군요. 이제 아래에 같은 시편 52편 8절과 9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봐, 내가 널 찢어버릴 거야 시편 52편 5절과 6절입니다.

몇 구절 아래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그들에게 일어난 일과 대조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무성한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영원히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이 행하신 일에 대해 영원히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이 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의 성도들 앞에서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악하고 나쁜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비난과 칭찬 사이의 연결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또 다른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4편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54편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시라.

주님은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악이 물러가게 하소서. 주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내가 당신께 자원하여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그리고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선하시오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고 내 눈이 내 원수들의 승리를 바라보았음이니이다.

그렇다, 적들은 패배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항상 복수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악인들이 멸망하는 곳을 그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신 승리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9절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도움을 청할 때 내 원수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그를 쫓고 있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하면 그들은 돌아설 것입니다.

이로써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줄을 알게 되리라. 즉, 원수들이 나를 파괴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섰고, 그들이 돌아섰을 때 여기에는 교육적 기능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거나 시편 기자가 그에게 악인을 멸하라고 요구할 때 그 의미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며, 거기에 항상 복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내가 뭔가를 배울 것이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육학적 동기, 교육학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57세,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이 있으면 건너뛰는 것입니다.

57절, 5절, 6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발 앞에 그물을 쳤습니다. 나는 몸을 굽히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는 길에 구덩이를 팠지만 스스로 그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무엇입니까? 좋아요. 그들은 구덩이를 파고 스스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울무에 빠뜨리려고 하던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시편 기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당신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시편 57편은 우리가 방금 말한 것입니다. Matt Hoffland는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고 그의 영광이 악인의 멸망과 함께 온 땅에 있음을 노래합니다.

이제 시편 58편이 우리가 실제로 저주하는 시편을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다른 모든 의미는 인용문, 저주의 시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의 시편을 읽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제안하려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여기에는 교육적 기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에는 많은 기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58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입안의 이를 부러뜨린다고 합니다. 매우 강력한 진술입니다. 오 하나님, 그들의 입에 있는 이를 부러뜨리십시오.

오 하느님, 사자의 송곳니를 뽑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빨에 초점을 맞추면 사자가 와서 먹어치우고 이빨을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활을 당기면 물이 흘러가듯이 그것들도 사라지게 하소서.

그들의 화살이 사산아처럼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민달팽이처럼 무너지게 하소서. 그들이 태양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강력한 진술입니다.

너희 솔이 가시덤불의 열기를 느끼기 전에, 그 가시가 푸른 것이든지 마른 것이든지, 악한 자들은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 다음 남자들은 치아 부러짐, 민달팽이, 사산아 때문에 알았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의인은 여전히 상을 받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느니라. 따라서 이러한 저주가 있을 때 저주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5장, 6장의 언약적 저주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오시는 곳은 언약의 맥락에서 축복과 저주로 끝난다.

이제 저주는 실제로 여기 시편 기자에게서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난의 시편입니다.

시편 59편은 우리의 두 번째 저주의 시편입니다. 우리에게서 두 개의 저주의 시편인 58편과 59편이 있습니다. 59절에는 여호와여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우리 방패와 내 백성이 잊어버리리이다 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은 내 원수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파괴하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테니까요.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사람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당신의 힘으로 그들을 방황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다 없어질 때까지 소멸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세상 끝까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심판이 임하고 심판이 내리느니라. 그러면 시편 기자는 방향을 바꾸는데 그것이 기초가 됩니다. 오 나의 힘이시여, 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전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도에서 본 것과 비슷한 비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2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주님, 당신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의 개념을 불러일으킵니다.

악인과 원수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거기서는 공평이 일어납니다. 시편 63편 9절과 10절, 내 생명을 찾는 자는 멸망하리로다. 그들은 땅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칼의 손에 넘겨져 자칼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63절 9절과 10절에 매우 강력한 진술이 있습니다. 64절로 내려가서 이 점을 언급하겠습니다.

64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화살로 쏘실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은 쓰러질 것이다. 그는 그들의 혀를 돌이켜 그들을 대적하여 파멸시키실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은 모두 조소하며 고개를 흔들 것이다. 이제 68편은 여기서 또 다른 비난의 시편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칭찬으로 이어지는 비난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 사이의 연관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외부에 있었고, 비난의 시편 밖에도 비난이 있었다는 것을 마지막 몇 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주의 개념이 저주하는 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전체에 걸쳐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68편은 비난하는 시편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연기가 바람에 의해 날아가듯이 당신도 그것들을 날려버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밀랍이 불 앞에서 녹듯,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구름을 타시는 자를 찬양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므로 악인의 멸망을 받으시고 즉시 돌이켜 구름을 타시는 자를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애도와 비슷한 것을 보아온 찬양을 향한 아름다운 저주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끝 부분에 가까워졌습니다. 64, 7부터 9까지, 우리는 교대를 찬양하는 것에 대해 동일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화살로 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쓰러질 것이다. 그는 그들의 혀를 돌려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을 보는 사람은 모두 조소하며 고개를 흔들 것이다.

이제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온 인류가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선포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악인의 멸망을 볼 때에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느니라. 69, 저주의 시편. 다시 시편 69편으로 돌아가서, 범죄에 범죄를 더해 그들을 기소하십시오. 일종의 사법적 맥락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매우 강력한 진술입니다.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소서.

매우 강력한 진술입니다. 생명책, 네가 생명책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기억하고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리라. 나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이런 저주를 받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말이 이어집니다.

이제 끝까지 작업하면서 우리는 저주의 시편인 제2권, 70장의 거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70은 또한 저주의 시편이다. 69, 70, 58, 59, 두 권에 있는 네 개의 저주의 시편.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부끄러움과 혼란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파멸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부끄러움 때문에 물러가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 즉 거기에서 큰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말하려고 하는 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높여달라고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높여라. 이번에도 칭찬의 발언이 바로 뒤따랐습니다. 시편 71편은 저주하는 시편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71편 10절에서 15절, 그리고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자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앞부분을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71장이며, 이제 막 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2년과 43년에 책이 어떻게 열렸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71장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쫓아가서 붙잡으라. 그를 구출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오셔서 나를 도우소서. 나의 고발자들이 수치스럽게 멸망하게 하소서.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멸시와 불명예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언제나 희망을 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점점 더 칭찬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적들을 바꾸고, 경멸하고, 경멸하십시오.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욱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 입이 주의 의와 구원을 종일 전하리로다 그러나 내가 측량할 수 없나이다 당신께서 구속하신 나를 내가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칠 것입니다.

내 혀가 주의 의로운 행위를 종일 전하겠습니다. 나를 해치려던 자들이 부끄러움과 혼란을 당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비난이 칭찬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지금 저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나를 해치려던 자들이 부끄러움과 혼란을 당하였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찬양의 일부입니다. 시편 71편, 미래에 찬양하겠다는 그의 서원. 시편 71편이 바로 우리가 방금 다루었던 시편입니다.

이제 우리는 2권에서 시편 두 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너무 길어져서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45장은 인간 왕과 인간 왕이 신부와 결혼하는 결혼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시편 45편, 왕과 신부의 결혼식.

시편 72편은 시편 71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7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무 늙었으니 늙고 약할 때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편 72편은 활기 넘치는 젊고 왕이 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은 약한 왕이 쇠퇴하는 모습이고, 시편 72편은 강한 왕 솔로몬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자리를 떠나고 밋세바와 나단이 그에게 들어오고 솔로몬이 두세 장을 이어받는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2장과 3장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왕의 요구 사항 중 하나에 주목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신적인 왕, 즉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 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4절에 보면, 그는 인간 왕이 백성 중에서 고난당하는 자를 보호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압제자를 분쇄하실 것이다. 인간 왕의 직업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억압자를 분쇄하기 위해. 그것은 비난입니다.

그곳에서는 일종의 저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저주의 시편 외에 찬양으로 바뀌거나 찬양으로 바뀌는 저주의 진술을 보여주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욕설을 한 다음 칭찬, 욕설, 칭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네 개의 저주의 시편 58, 59, 69, 70편을 살펴보고 이 시편들 역시 같은 취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악인에 대한 저주, 악인의 멸망은 의인을 찬양하게 한다. 이제 Zenger는 그의 저서 A God of Vengeance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짧은 문단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그가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적개심의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독단적인 교리도, 성경적 윤리의 요약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비난에 관한 이번 논의의 대부분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폭력의 가해자들에게 거울을 비추는 시적인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 폭력의 피해자들이 정의를 외치고, 복수의 하느님께서 그들의 인간 존엄성을 굳게 지키시고, 하느님을 거스르는 폭력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의하여 비폭력으로 견디어 달라는 외침을 냄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적과 적대감의 이미지에 대한 두려움. 시편에 나타난 복수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은 자신의 복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나를 뒤쫓는 적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을 쫓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저주의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 교육적 이유, 가르치는 이유, 정의의 이유, 복수의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저지르므로 폭력의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는 그 정의를 실천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난하는 시편은 정의를 외치는 것입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위한 외침입니다. 왕에게 그 궁핍한 상황에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무엇을 하게 만드는가? 유린당하는 무력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원수가 시편 기자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왕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이제 요약하자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한 세 가지 작업은 의식에 대해 수행했으며 기본적으로 시편이 이러한 의식적인 성전, 제단, 행렬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찬양의 기초로서 애도의 중요성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한 것은 칭찬이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단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것은 애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비난이 칭찬의 기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비난조차도 그 자체를 칭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폭력의 파멸과 정의의 확립은 찬양을 구하는 부르짖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부르짖음으로 이어진다. 자, 다음 시간에는 찬양의 서원, 찬양의 부르심, 찬양의 원인, 찬양의 장소, 찬양하는 방법, 그리고 찬양의 현대적 함의 측면에서 찬양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배. 그래서 다음번 에는 칭찬의 그런 면에만 집중해서 오늘 했던 애도와 함의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정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제2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는 테드 힐데브란트 박사(Dr. Ted Hildebrandt)입니다. 찬양의 기초가 되는 탄식과 저주에 관한 세 번째 세션입니다.